

AI열풍-감산 효과... “반도체株 3분기 본격 반등”

‘2분기 바닥론’에 외국인들 “사자”
지난달 코스피 상승률 G20서 5위

메모리 수요 하반기 대폭 증가 예고
삼성전자 실적 전망 1년만에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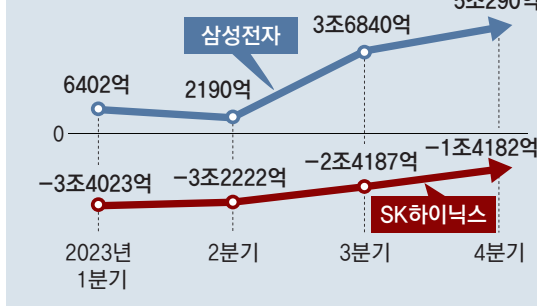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5월 코스피 상승률이 주 20개국(G20) 중시 가운데 5위를 차지했다. 반도체 산업이 2분기(4~6월) 바닥을 찍고 3분기(7~9월)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5월 주가에 반영되면서 전체 주식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종가 기준 코스피는 2,577.12로, 4월 말(2,501.53) 대비 3.02% 상승했다. 이는 G20 중시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코스피는 2월 2,601.36에 장을 마치고 지난해 6월 9일(2,625.44) 이후 1년 만에 2,600 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메르발 지수는 5월 한 달 동안 14.81% 급등해 G20 중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일본 닛케이(225(7.04%), 튀르키예 비스트100(5.82%), 브라질 보베스파(3.74%), 코스피가 뒤를 이었다.

5월 코스피 강세는 반도체주 영향이 컸다. 특히 외국인이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5월 한 달간 외국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의 전망
단위: 원. 1분기는 확정치, 2~4분기는 전망치.
자료: 에프엔가이드



3354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조5670억 원, 1조4717억 원 순매수했다. 이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5월에 각각 9.01%, 21.34% 상승했다.

투자자들의 반도체주 매수가 이어지는 것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2분기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 측면에서 반도체 감산의 효과가 나타나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수요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2일 기준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전망치)는 70조4716억 원,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조68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 전망치 매출 69조9109억 원, 영업이익 3조6813억 원보다 소폭 상승했다.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전망치는 지난해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오다 이달 들어 처음으로 반등했다.

SK하이닉스는 연말까지 적자폭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3조2222억 원 적자를 낸 뒤 3분기(-2조4187억 원)와 4분기(10~12월·-1조4182억 원)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 전문가들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전망하는 것은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공급, 수요 양면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하반기(7~12월) 스마트폰, PC, 서버 등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보기술(IT) 수요가 침체된 상황에서 나홀로 성장해온 AI 관련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깎

짝 실적’을 냈는데, AI에 주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쓰이기 때문이다. 엔비디아 GPU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반도체가 쓰인다.

공급 측면에서는 올 1분기 삼성전자도 동참하기 시작한 메모리반도체 감산의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경쟁사들은 지난해부터 감산에 돌입했지만 반도체 제조사와 고객사 양측에 재고가 많이 쌓인 탓에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최첨단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범용 반도체에서 감산 효과가 나타나면 하반기 중 공급 축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syeon@donga.com·홍석호 기자



네집중 한집꿀 반려동물 키위 양육비 지출 한달 평균 15만원

KB경영연구소 설문조사
동물보험 가입은 12% 그쳐

전체 가구 넷 중 하나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운데 반려동물 양육비가 한 달 평균 약 1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동물 가구는 552만 가구로 2년 전보다 약 2.8% 늘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약 2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구소는 전국 만 20세 이상 69세 미만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내놓았다.

반려동물 양육비는 월평균 약 15만4000원으로 2021년(14만 원)에 비해 1만4000원 늘었다. 동물별로는 반려견에 월 14만8000원, 반려묘에 월 13만6000원이 각각 들었다.

양육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사료비(31.7%)였고 이어 간식비(19.1%), 배변패드 등 일용품(12.7%), 미용비(10.5%) 등의 순이었다. 최근 2년간(2021~2022년) 반려동물에 치료비를 지출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73.4%로, 평균 지출 비용은 78만 7000원이었다.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자금을 따로 마련한 가구는 전체의 21.5%에 그쳤다. 특히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1.9%에 불과했다. 월 보험료가 부담스럽고 보장 범위가 좁아 반려동물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입을 꺼리는 가구가 많았다.

반려동물 가구가 많이 키우는 반려견 품종 1, 2위는 몰티즈(25.9%)와 푸들(21.4%)로 조사됐다. 반려묘 선호도는 코리안샴어(62.1%), 페르시안(15.0%), 러시안블루(11.9%) 등의 순이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호텔 옥상서 벌꿀 따요” 4일 경기 성남시 최대 규모 프리미엄 풀서비스 호텔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벌꿀을 채취하고 있다. 호텔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호텔 루프톱 내 양봉장에서 첫 벌꿀을 수확했다. 성남=뉴스1

NH증권 황당한 실수 상장폐지 대상 ETN 청산 안되고 계속 거래

NH투자증권이 투자설명서에 청산 및 상장 폐지 요건을 넣지 않는 실수를 해 청산됐어야 할 상장지수증권(ETN)이 계속 거래되는 일이 일어났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9개 증권사가 발행한 천연가스 레버리지 ETN 가운데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을 제외한 7개사의 상품이 조기 청산, 상장 폐지 절차를 완료했거나 거래가 정지됐다. ETN은 특정 지수의 수익을 좇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이다.

최근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하락하며 이들 종목은 모두 장 종료 시점에 실시간 지표가치(IV)가 1000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ETN 조기 청산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규정은 ETN에 과도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20년 7월 시행됐다.

삼성증권의 ‘레버리지 천연가스 선물 ETN B’는 2일 장 마감 당시 실시간 지표가치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해 조기 청산 요건을 피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의 ‘QV 블룸버그 2X 천연가스 선물 ETN(H)’의 경우 실시간 지표가치가 930원대로 떨어졌음에도 거래가 정지되지 않았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설명서에 조기 청산 요건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았는데, 해당 내용이 상장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상품은 만기까지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 1.4% 하락 국제 설탕값은 올들어 35% 급등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계 설탕 가격은 올 들어 30% 넘게 올라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5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 하락했다.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했다. 닭고기(14.8%)와 양파(33.5%)는 1년 전에 비해 크게 올랐다. 닭고기값 상승은 병아리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들의 병아리 공급을 독려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해 닭고기 공급을 늘리고 있다.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해선 이달 중 수입 양파 5000 t을 공급할 계획이다.

식량지수는 하락했지만 설탕값은 오르고 있다. 지난달 세계설탕가격지수는 전월(149.4)보다 5.5% 오른 157.6이었다. 1월 가격지수(116.8)와 비교하면 4개월 동안 34.9%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세계 설탕 가격이 2011년 이후 최고로 오르자, 설탕의 할당관세 적용 세율을 기존 5%에서 0%로 낮춰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조용형 기자 yesbro@donga.com

종근당건강

눈 나이 먹지 말고 아이클리어® 먹자!

아이클리어® 루테인지아잔틴
황반의 중심부터 주변부까지 눈 노화 집중케어!



황반 전체에 존재하는 ‘루테인’
+ 황반 중심부에 집중된 ‘지아잔틴’

특별한
할인혜택!

1644-0884

종근당건강 공식판매센터



노화로 인해 감소되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